

홀소리와 닿소리의 생성

김 영 승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 1. 머리말
- 2. 홀소리/닿소리/반홀소리
 - (1) 조음적 분류
 - (2) 물리적 성질에 따른 분류
 - (3) 보코이드/콘토이드
 - (4) 좁힘에 따른 분류
- 3. 홀소리의 하위 분류
 - (1) 최고점에 따른 분류
 - (2) 좁힘점에 따른 분류
- 4. 닿소리의 하위 분류
 - 스침소리 [H]의 제안
- 5. 마무리

1. 머리말

말소리의 분류는 동일한 홀소리로 묶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일한 홀소리란, 조음상, 청각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청각상 유사성의 경우, 특정 언어의 토박이에 의해 동일 음소 단위로 수용되어야 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여기서 ‘청각상의 동일’이란, 보다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음소의 구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음성학적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들린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말소리를 분류한다는 것은, 조음의 방법이 유사하고, 음성학적 판단에 의해 동일하다고 판정되는 홀소리를 한 데 묶고, 다른 홀소리와 구별하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소리를 분류할 때, 어떠한 소리뭉(音類)의 설정이 가능할까?

2. 홀소리/닿소리/반홀소리

(1) 조음적 분류

“홀소리는(정상적인 소리말에서): 막음이나, 갈이가 들리는 좁힘을 하지 않고, 목머리(咽頭)와 입안을, 이어내는 기류로 만들어지는 울림소리(유성음)라고 정의된다.” (Jones,1960)

이 <정의>에 따라 영어 말소리를 분류해 보면, [æ a p b s z]들은 어김없이 홀/닿소리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r j w] 들은 그렇지 못하다.

[æ a] ; 막음이나, 갈이가 들리지 않고, 울림소리이므로 ... 홀소리.
[p b s z]; 막음이나, 갈이가 들리는 좁힘이 있으므로..... 닿소리.

- [r]([ʀ]) : 막음이나, 갈이가 들리지 않고, 혀말이 외에는 [ə]와 별로 다르지 않다. <정의>에 따르면 홀소리이어야 하나, 통상 닿소리로 다룬다. (혀말이를 닿소리의 속성으로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통상 홀소리로 다루어지는 [ə]를 닿소리로 해야 하니, 일관성이 없게 된다.)
- [j w] : [i u]와 비슷한 입과 입술 모양으로 출발하여, 급속히 다음 소리로 옮겨간다. 막음이나, 갈이가 들리는 좁힘을 하지 않고, 목머리와 압안을, 이어내는 기류로 만들어지는 올림소리이므로, [i u]처럼 홀소리여야 한다. [i u]가, 한 동안 어느 정도 같은 조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대하여, [j w]는 고유의 조음 상태에서 다음 소리의 조음 상태로 급히 옮겨간다는, 상이점이 있지만, <정의>는 이와 같은 조음체의 움직임 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홀소리'라 불러, 닿소리의 일종으로 하고 있다. (여기 반홀소리란, 홀소리의 성질을 가진 닿소리란 뜻이다.)

[r j w] 들이 일반적으로 닿소리로 다루어지는 것은, 낱내(음절)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말소리의 기능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 | | | |
|-----------------------|-------------------|------------------|
| (1) /'rɛt/ (ret), | /'jɛt/ (yet), | /'wɛt/ (wet) |
| (2) ['bʌtŋ] (button), | ['sædʒ] (saddle), | ['lɪtʃ] (little) |

(1)의 /ɛ/는 낱내 으뜸음(音節主音, syllabic nucleus)이고, /r j w t/는 낱내 버금(音節副音, marginal element)이란 이유로, 앞것을 홀소리, 뒷것을 닿소리라 한다. 이 경우의 홀/닿소리는 음운론적 분류이고, <정의>에 입각한 홀/닿소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 (2)에서처럼 [ŋ] [ʃ]은 낱내 으뜸음인데도 닿소리라 한다. 미국영어 red의 첫소리 /r/과 butter의 끝소리 /r/을 제각기 [r][ə]로 적어, 앞것을 닿소리, 뒷것을 홀소리라 하는 것도, 음운론적 홀/닿소리와 음성학적 홀/닿소리를 혼동한 데서 온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음운론적 분류는 특정 언어마다 기준이 달라 일반성을 찾기가 어렵다.

(2) 물리적 성질에 따른 분류

홀/닿소리의 구별에 음향적 특징을 원용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류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 ㉠ 악음성: 악음(樂音, musical tone)이란 주기파(periodic wave)를 말하며, 비주기(aperiodic) 파인 조음(噪音, noise)에 대한다. 홀소리와 향음(콧소리, 흐름소리)이 포함된다.
- ㉡ 공명성: 향음과 홀소리는 입안의 공명을 띠는 공명음(sonorant)이고, 터짐소리와 갈이소리만이 공명을 띠지 않는다.
- ㉢ 마찰성: 홀소리에 마찰성 조음(frictive noise)이 없다고 하나, 마찰성 조음이 있는 홀소리([i][u])도 있고, 그것이 없는 닿소리도 있다.
- ㉣ sonority: [i]와 [r]의 힘(power)이 서로 비슷하다는 실험 자료가 있다.
- ㉤ formant: [h]의 formant는 갈이소리에보다 홀소리에 매우 가깝다.

(3) 보코이드/콘토이드

‘막음’이란, 장애(obstruction)의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홀소리에 대립한 조음(터짐, 갈이, 코, 흐름)을 말하나, Jones의 <정의>에서는 갈이에 대립한 개념이었다. 이처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말소리는, 기류에 대한 장애로써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장애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도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Pike(1943)는 이에 대하여 말소리를 ‘좁힘’(stricture)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종래의 홀/닿소리 정의의 결합을 없애기 위하여, 순수히 음성학적 관점에서 말소리를 ‘보코이드(vocoid)’와 ‘콘토이드(contoid)’로 양분하는 분류를 시도하였다.

vocoid ; 입안에 갈이를 일으키지 않고, 기류가 혀 중앙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소리.
contoid ; 그 밖의 소리. (Pike, 1943)

이렇게 하면, 말소리는 명확하게 2종으로 나누어진다. 즉:

‘기류가 혀 중앙을 통하여 밖으로 나간다’는 기준으로, 기류가 입안에서 어떤 막음을 받는 것([p b m n...]나 떨음소리)과 소릿대(vocal tract)의 측면을 통하는 것을 제외한다. ‘입안에서 갈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입안에서 발생하는 마찰성 조음(noise)을 제외하여, 보코이드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¹⁾

이 정의는, 종래의 정의에서 기능면의 고려를 제외한 점으로 명료한 분류라 하겠으나, 분류에 말소리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흠이 있다. 마찰성 조음을 띠는 소리는, 기류가 혀 중앙을 통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류가 측면을 통과하는 것에도 마찰성 조음을 띠는 것이 있다. 이 분류에서는, 기류가 소릿대의 중앙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마찰성 조음의 띠/안땀을 구별하지만, 기류가 측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마찰성 조음의 띠/안땀을 구별하지 않는다. [r]과 [l]은 어느것이나 갈이가 없는 계속음이지만, [r]은 기류가 중앙을 통하고, [l]은 측면을 통한다. 그러므로, [r]은 vocoid, [l]은 contoid로 분류된다. 그러나 청각상의 인상을 고려하면, 이 둘은 닮은 데가 있어, 말소리를 양대별할 경우, 둘을 다른 뜻으로 나누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²⁾

-
- 1) [h]도 보코이드이다. [h]에는 매우 어린 일종의 조음(noise)이 들려, 일반적으로 목청(소리문)의 갈이소리(glottal fricative)라 불리우나, [h]의 조음은 조음부의 접근으로 생기는 마찰성 조음과는 다르다. 앞것은 매우 어려서, 울림을 떨 경우([h]가 울림을 띠면 [i a...]등의 홀소리가 된다)에는 조음이 들리지 않는 데 대하여, 뒷것은 울림/안울림의 어느 경우에도 조음이 들린다. Pike(1943)는 [h]와 같은 조음을 강부마찰(cavity friction)이라 하여, 마찰성 조음인 국부마찰(local friction)과 구별한다. (Jones의 정의에서는, [h] 조음의 해석과는 관계 없이, 안울림이라는 이유로 닿소리가 된다.)
- 2) 여기서 ‘청각인상의 유사’란, 음질의 유사를 뜻하지 않는다. [b z]들과 대비할 때, [l r]은 [i ə]들의 이른바 ‘홀소리에 가까운 청각인상’을 준다는 점으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vocoid와 contoid의 분류를 도시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리고, 이것을 전통적 분류에 적용하면 대략 그림2와 같이 된다. 그러나, '기능'이란 이질적인 기준이 혼용됨으로써 '반홀소리'란 중간항을 낳게 되었다. 반홀소리는 좁힘의 정도로 홀소리와 닿소리의 중간에 있는 이른바 '접근소리(approximant)'란 조음적 관점과, 고정부(steady state)에 대한 이행부(transition)로서의 미끄럼(glide)이란 결합적 관점과, 날내 구성에서 버금날내란 기능적 관점 등으로 규정되는 것인데, 어느 관점으로도 반홀소리들을 두루 충족시킬 수는 없다.

V O C O I D		C O N T O I D	
막음 없음		막음 있음	
같이 없음 j w h		같이 있음	
[중앙 톤표] r	[측면 톤표] l		

그림1. vocoid/contoid 소리뭇

기능	소리뭇	V O C O I D	C O N T O I D
		으뜸날내	홀 소 리
버금날내		반 홀 소 리 j w r h	닿 소 리 l

그림2. 날내 구성 기능을 고려한 vocoid/contoid 소리뭇

(4) 좁힘에 따른 분류

홀/닿소리의 구별은 본래 음운론에 속하는 것으로서, 음성학적인 분류에 음운론적 분류를 도입하는 일 자체가 잘못이라는 견지에서, 홀/닿소리의 구별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 [p b t d...] 등 터짐소리(폐쇄음)의 좁힘(constrictive stricture)이 조금 커지면 같이소리(마찰음)가 생기고, 다시 커지면 [r j w]나 홀소리가 생기듯이, 닿소리의 조음은 조금씩 변해 가는 연속적 현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딘가에서 양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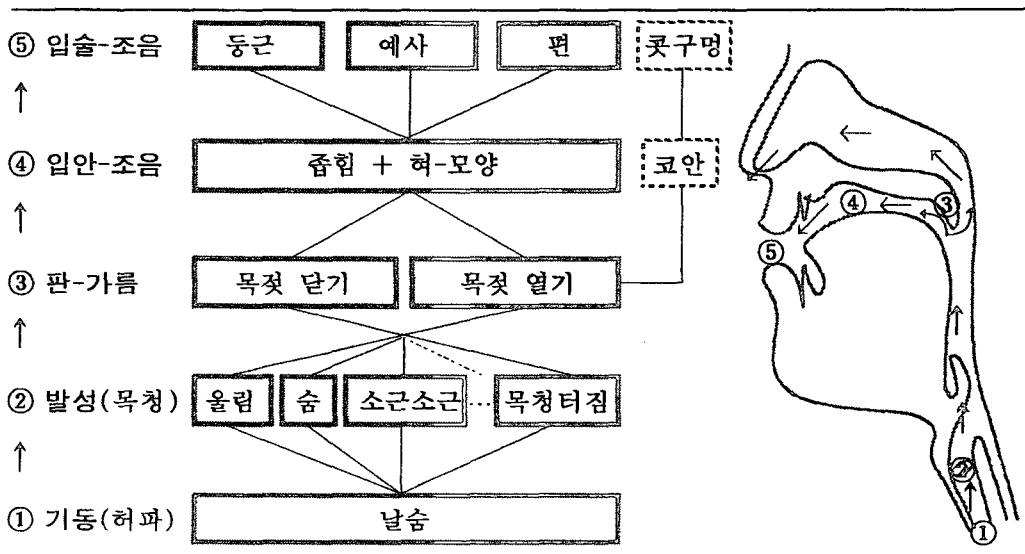
그런데, 전통적 분류의 닿소리의 하위 구분은 조음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대하여, 흘소리의 하위 구분은 조음적으로 할 수 없고, 주로 청각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흘/닿소리의 구별을 없앤 분류는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음 기구를 정리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견지에서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본다. 보다 실제적인 분류를 도출하기 위하여, 조음면과 청각면에서 말소리를 분류해 본다.

㉞ 말소리의 산출 기구

기동부에서 일어난 기류³⁾는, 먼저 발생부(목청)에서 만들어진 여러 밑소리(원음, 原音, larynx tone, source)가 조음부에서 막음(너른 의미의 장애)을 받아 여러가지 말소리로 바뀐다. 이들은 목젓에서 판(valve)-가름되어 입안소리와 콧소리로 나뉜다. 코안에서는 다시 조음 운동이 없으나, 입안에서는 갖가지 조음 운동을 하여 그 결과 다양한 말소리가 생기며, 이들은 다시 입술에서도 윤색된다. 이처럼 말소리는,

①기동 → ②발성 → ③판-가름 → ④입안-조음 → ⑤입술-조음
의 단계를 거쳐 생성된다. 입안-조음은 막음의 좁힘과 혀-모양이 중심적인 조음이다.

표1. 말소리의 산출 기구



3) 기동부에는; 허파(부아소리), 목청(목소리), 입안(입소리)이 있으나, 허파-기동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서는 부아-날숨소리를 대상으로 한다.

㉔ **좁힘과 청각인상**

조음면의 특징은 좁힘으로 이루어진다. 좁힘에는, 조음부를 닫아 기류 통과를 막는 닫침(closure)의 완전성에 따라 완전-닫침과 불완전-닫침이 있다. 불완전-닫침에는 순간-닫침 및 단속-닫침과, 조음부를 닫지 않고 서로 가까이 하는 접근(approximant)이 있는데, 접근에는 압축-접근과 비압축-접근이 있다. 이들은 기류의 통로(중앙/측면)와 서로 어울려 다양한 말소리를 만들어 낸다.

청각적 특징은, 끊음(stoppage), 순시성(instantaneity), 마찰(friction)⁴⁾, 악음성(musicality), 비음성(nasality) 등과 이들의 고정(steady-state)/이행(shifting)이 결합한다. 말소리의 보기를 들면 표2와 같다.

표2-1. 조음과 청각에 따른 분류

좁힘 조음	말소리의 보기	청각인상
1. 완전-닫침	p b t d	끊음
	m n ŋ	비음성-악음성
2. 순간/단속-닫침	r r R	순시성
3. 압축-접근	f v s z	마찰
4. 비압축-접근	j w	이행-악음성
	l ʃ ʒ	고정-악음성
	i e ε a o œ ɔ u ə	

좁힘 조음과 청각 인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2-2와 같다.

표2-2. 좁힘 조음과 청각 인상에 따른 분류

소리뭉	좁힘 조음	청각 인상
홀소리	비압축-접근(중앙-닫침을 갖지 않음)의	고정-악음성의
닿소리	비압축-접근 이외의	고정-악음성 이외의
반홀소리	비압축-접근의	이행-악음성의

이 분류가 종래의 홀/닿소리의 분류와 다른 것은, 2분법이 아니고 3분법이며, 순전히 음성학적 견지에서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종래의 반홀소리는 닿소리의 일부였다.

4) '마찰' 은 갈이(국부마찰)와 스킴(강부마찰)의 상위 개념으로서 조음-청각적 특징을 말한다.

3. 홀소리의 하위 분류

(1) 최고점에 따른 분류

음성 분류에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특징은 막음의 좁힘이다. 닿소리 조음의 좁힘은 단침과 압축-접근이기 때문에 조음 부위들의 밀착이나 협착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홀소리 조음의 좁힘은 비압축-접근이기 때문에 조음 부위의 밀착이나 협착이 없어, 입안 넓이(좁음—반좁음—반넓음—넓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Jones는 홀/닿소리를 기술할 때, 그 기본이 되는 소리를 설정해 놓으면, 이에 준거하여 무한한 말소리를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기준점(cardinal point)이다. 이에 따라, 홀소리와 닿소리의 기본점을 설정했는데, 홀소리는 조음의 결정적 구실을 하는 혀가 입천장에 대해 취하는 자리의 기본이 되는 점, 닿소리는 혀와 입천장에서 생기는 단침이나 좁힘의 자리의 기본이 되는 점이다. 이 가설의 소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 기본 홀소리와 기본 닿소리이다. 기본 홀소리는 기술이나 학습에 매우 편리하여,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 닿소리는 닿소리에 대한 각국어의 공통도 높은 청각 인식의 단위를 조음자리와 조음 양식에 따라 분류하였기 때문에, 분류 기준은 홀소리의 기준과 달라지게 된다.

Jones는, 홀소리를 조음할 때는, 혀가 볼록(凸)꼴이 되어, 따라서 혀 표면의 어딘가에 두드러지게 높아진 데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곳을 ‘혀의 최고점(highest point)’이라 하였다. 최고점이 가장 앞-높은(그 이상 높아지면 혀앞과 셴입천장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는) 점과, 최고점이 가장 뒤-낮은(그 이상 뒤로 가면 혀뿌리와 목머리벽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는) 점의 둘을 홀소리 분류의 가장 중요한 곳이라 하여, 최고점이 그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한계에 있는 것들을 앞계열, 최고점이 그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는 한계에 있는 것들을 뒷계열이라 하였다. 이들이 홀소리의 한계선이 되어, 이 선 밖에는 어떤 홀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그림3).

Jones는 X선 사진으로 혀자리의 4극점—[i][a][ɑ][u]의 최고점을 실측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홀소리 한계선 안에 있는 것으로서, 혀앞이 [i]보다 셴입천장으로 더 올라가면 [j]가 되고, [a]보다 아래로 더 내려가면 홀소리의 영역을 벗어나며, 혀뒤가 [u]보다 여린입천장으로 더 올라가면 [w]가 되고, [ɑ]보다 목머리벽으로 더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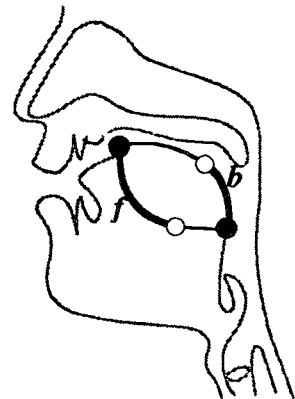


그림3. 홀소리 한계선
f=앞계열, b=뒷계열
●○=4극점

러나면 [ɜ]가 된다. [i]~[a]와 [ɑ]~[u]의 사이는, 제각기 청각적으로 3등분하여 도합 8개의 기준점—기본홀소리(cardinal vowel)를 정했다. 이 기준점은, 앞계열을 위에서 아래로, 다시 뒷계열을 아래에서 위로 1~8의 번호를 붙여, 그 이름으로 삼았다. 여기서 청각적으로 등분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예컨대, C2(제2 기본홀소리)는 C1과 C3의 사이를 청각적으로 2등분한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충분히 훈련을 받은 사람의 귀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기본 홀소리는 모두 22개인데, C1~C8을 제1차(primary) 기본 홀소리, C9~C22를 제2차(secondary) 기본 홀소리라 하였다. C9~C13은 C1~C5와 같은 혀자리의 등근-입술이고, C14~C16은 C6~C8과 같은 혀자리의 예사-입술이다. C17은 C1과 C8의, C19는 C2와 C7의, C21은 C3과 C6의 청각상 중간의 예사-입술이다. C18, C20, C22는 제각기 C17, C19, C21의 등근-입술이다.

1	i	8	u
2	e	7	o
3	ɛ	6	ɔ
4	a	5	ɑ
9	y	16	ɯ
10	ø	15	ɘ
11	œ	14	ʌ
12	ɶ	13	ɒ
17	ɨ	18	ɤ
19	ɘ	20	ɵ
21	ɜ	22	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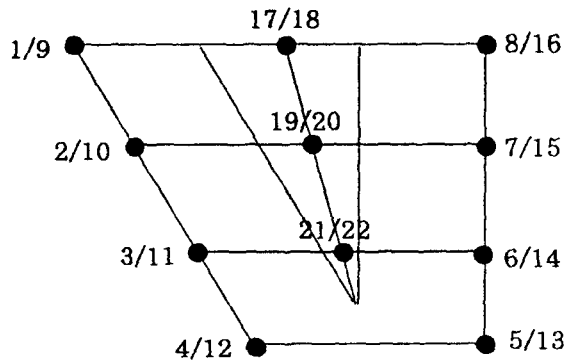


그림4. 기본 홀소리

(2) 좁힘점에 따른 분류

Jones는, 기본홀소리를 정할 때, C1, C4, C5, C8에 대해서는 X선 사진으로 최고점을 정했으나, C2, C3, C6, C7은 청각 인식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기본홀소리는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이란 비난을 받는 때가 있다.⁵⁾ 실제로 Jones가 설정한 최고점을 X선으로 실측한 결과는 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Ladefoged(1975)가 추수 실험한 결과를 재구성해 보면 그림5와 같다. 이에 따르면, [i][e][ɛ]들은 위쪽에 몰려 있고, [a]는 훨씬 위에 있으며, [o]와 [ɔ]는 거의 같은 높이에 있다.

5) 그러나, 기본홀소리는 조음 자리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음질에 의해 정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분류는 복잡한 혀자리를 간명하게 기술할 수 있고, 학습 효과를 가진 점에서 유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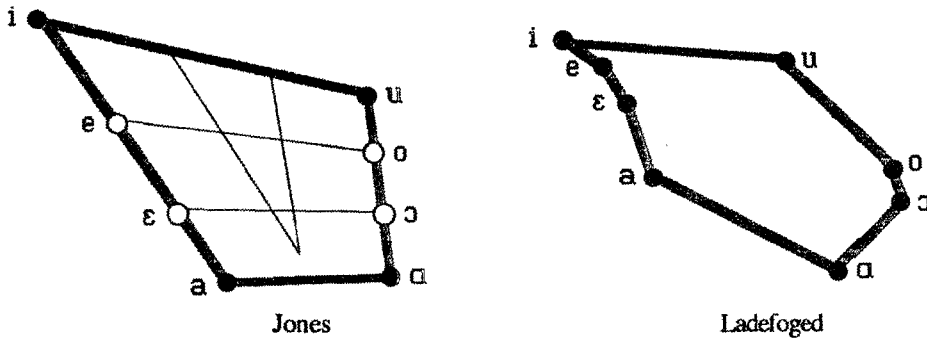


그림5. 최고점의 자리(●는 X선 실측, ○는 청각적 구분)

홀소리 생성에 있어서 혀의 자리잡음(높-낮, 앞-뒤 운동)의 의의는, 입안을 공명실(resonance chamber)로 형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홀소리 생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조음적인 고찰과 함께 음향적인 측면을 고려에 넣어야 하는 것이다.

홀소리의 조음-음향(생리-물리)적 연구는, 관찰의 대상을 헛바닥만에 한정하지 않고, 소릿대(聲道, vocal tract) 전체에 걸쳐 확대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소릿대 전체가 공명실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홀소리 조음에서 만들어지는 소릿대의 모양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⁶⁾

Chiba-Kajiyama(1941)는 일본말 홀소리의 소릿대를 정밀하게 실측하여, 그 공명실의 모양을 그림7처럼 모형화하였다. 이를 보면, 좁힘이; [i], [e]는 앞쪽에, [u]는 중간에, [o], [a]는 뒤쪽에 있다. 그 결과, 입안 공명실은: 앞-좁고 뒤-너른, 앞-뒤 너르기가 같은, 앞-너르고 뒤-좁은, 3유형의 모양이 되고 있다.

김 영송(1975)은 우리말 홀소리의 최고점과 좁힘점을 실측하였는데, 그림8에서 보듯이, [이, 에, 애, 으, 우]의 좁힘점은 최고점과 거의 같은 자리에 있으나([으]는 뒤), [오, 어, 아]는 좁힘이 목머리에 있어 최고점과 멀리 떨어져 있다. 소릿대의 모양은, 입안의 어디가 좁아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소릿대 모양의 기술은, '좁힘점'(소릿대가 가장 좁아지는 자리)의 지정으로 가능하다. 그리하여 실측된 좁힘점들은 3가지 유형으로 무리져 있음을 알 수 있다(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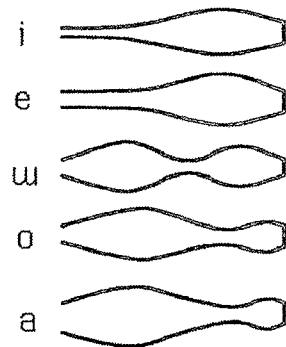


그림7. 일본말 홀소리의 소릿대 모형

6) Wood(1982)는 4 가지로 분류하였다.

좁힘에 의해 형성되는 소릿대 모양은 곧 음향적인 공명 이론에 부합된 여러 음향 음성학자들에 의하여 실증되고 있다. Wood(1982)는 소릿대의 좁힘 자리와 공명실의 체적을 면밀히 측정하여, 음향적 특성과의 연관을 밝히는 데 공헌하였다. Ladefoged(1962, pp.96-97)는 홀소리 조음의 X선 사진과 음성 스펙터를 대조하여 그들의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 Bronsahan-Malmberg(1976)은 홀소리 조음의 관찰을 혀바닥에 국한하지 않고, 혀뿌리와 울대마개를 포함한 입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림9). 그러므로, 홀소리의 기술과 그 분류는 조음-음향학적인 방법에 입각해야 보다 실증적이고 합리적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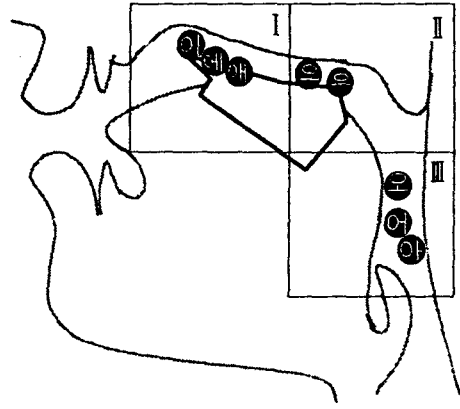


그림8. 우리말 홀소리의 좁힘점 (실선 삼각형은 최고점)

표3. 좁힘점으로 나눈 홀소리의 유형

유형	소릿대 모양	좁힘자리
I	앞이 좁고, 뒤가 너름	혀앞—센입천장
II	앞-뒤의 너르기가 같음	혀뒤—여린입천장
III	앞이 너르고, 뒤가 좁음	혀뿌리—목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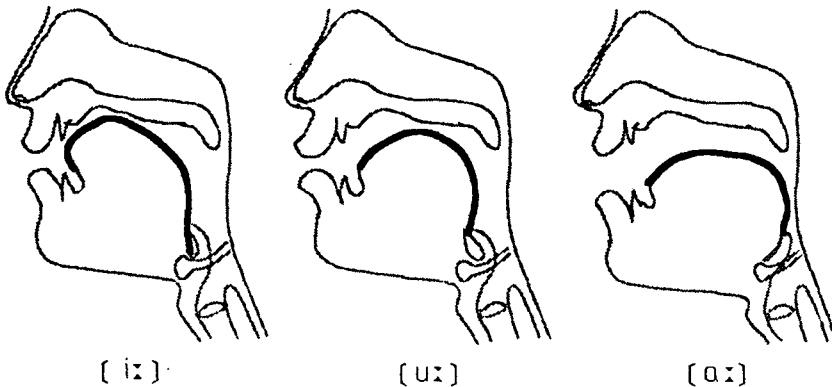


그림9. 주요 홀소리의 혀자리와 소릿대 모양

4. 닿소리의 하위 분류 —스침소리 [h]의 제안

닿소리의 분류에 대해서는 상술한 음성 분류에서 약술되었다. 다만 [h]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다. [h]는 목청-갈이소리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마찰에는 [s], [ʃ] ...같은 갈이(국부마찰)와 [h]와 같은 스침(강부마찰)이 있어, 갈이는 압축-접근이고, 스침은 비압축-접근의 조음을 한다. 이처럼 이들은 조음이나 음질이 전혀 달라, [h]는 닿소리에보다 홀소리에 가깝다.

[h]의 변이는 다양한데, 이것은 뒤따르는 홀소리의 조음(좁힘)자리에서 비압축-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즉, [h]는 뒤따르는 홀소리와 거의 같은 조음을 하는데, 다만 목청-울림이 없을 뿐이다. 그래서, Catford(1977)는, [hə][he]의 [h]를 목청공동의 난기류인 안울림 홀소리(voiceless vowel) [ə][ɛ]로 해석하였고, Pike는 [h]를 vocoid에 넣었다. 우리말의 /ㅎ/소리도 목청-갈이로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입안의 여러 곳에서 스침으로 조음된다. 허 용(1985)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루, 허리」 따위의 [ㅎ] 소리는 그 갈이가 그리 분명하지 않아서, 꼭 대롱(관)을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므로, ... 이런 소리를 ‘스침소리’ 라 한다.” (허 용, 1985, p.32)

그림10은 갈이소리들이 조음되는 자리인데, /ㅎ/의 변이음들은 이 자리에서 스침소리로 나는 것이다. 따라서, 「하, 허, 호, 후, ...」는 뒤따르는 홀소리의 좁힘점(그림8)에서 스침소리(안울림의) [ə ə ə u ...]로 실현되는 것이다. [h]를 마찰이란 이유로 일률적으로 목청-갈이로 분류하는 것은 말소리의 실상을 간과한 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h는 갈이소리 [h]와 구별하여 안울림 홀소리 [H]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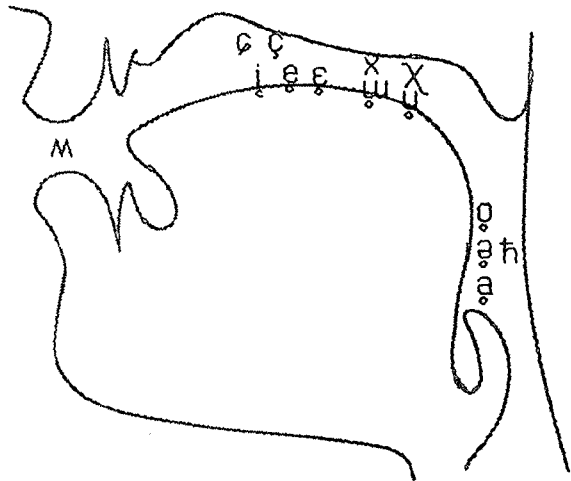


그림10. 갈이소리와, 우리말 스침소리의 조음자리

7) 김영송(1994)은 스침소리를 [H]로 표기하여, 갈이소리 [h]와 구별할 것을 제안하였다.

5. 마무리

말소리의 기술이나 분류는 일관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종래의 방법은 그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고식적이었다. 말소리 분류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특징은 막음의 좁힘이다. 좁힘이란 관점에서 보면, 홀소리와닿소리의 분류가 일관성을 가질뿐더러, 음향적인 특징과도 연계되는 합리성을 띠게 된다. 여기에 말소리 분류의 기본적인 이론과 방법을 제시한 이유가 있다.

< 참고문헌 >

- 김주원(1993), 《모음조화의 연구》,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김영송(1975), 《우리말 소리의 연구》 서울:샘문화사.
 김영송(1991), "한국어 마찰음 연구", 《우리말 연구》 1, 부산:우리말 연구회.
 김영송(1993), "우리말의 스침소리", 《말》 18, 서울:연세대.
 허 용(1985), 《국어음운학》, 서울:샘문화사.
 Bronsahan, L. F. & Malmberg, B.(1976), *Introduction to Phonetics*, London: Cambridge Univ. Press.
 Catford, J. C.(1977), *Fundamental Problems in Phonetics*, Edinburgh Univ. Press.
 Chiba, T. & Kajiyama, M.(1941), *The Vowel; Its Nature and Structure*, Tokyo: Kaiseikan.
 Jones, D. (1918-60),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Heffer & sons.
 Ladefoged, P. (1962), *Elements of Acoustic Phonetic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Malmberg, B. (1935), *La Phonétique*, "Que Sais-je ?" 637, Paris: Presses Univ. de France.
 [이현복 역(1988), 《음성학》, 서울:탐구당.]
 Pike, K. L. (1943), *Phonetics*, Ann Arbor, Michigan: Univ. of Mich. Press.
 Wood, S. (1982), "X-ray Model Studies of Vowel Articulation", *Working Papers* 23, Lund: Bloms Boktrvckri Ab.